

[ 오피니언 ]

월/요/광/장

민혜숙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비로소 건강한 자...

남의 일이 아니다. 고 3인 아들이 얼마 전...

알버트 메라비안(Albert Mehrabian) 교수는 대학...

그 엄마는 '내가 언제 뭐라고 하든?' 하면서...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엄마들은 '시험을 못 보...

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어 몰입교육 이...

힘든 세상, 따뜻한 말

떨어졌다는 것이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졸기를 끈...

실망했던 아이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시의 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교육가 에...

<소설가·호남신학대 겸임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지현

교직은 그리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수도...

문제가 생기 마련이다. 교사의 과도한 노동은...

교사들에게 편안한 휴가를

강화되면서 대다수 교사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

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기 쓸 '거리' 없다고 '일' 만들어 쓴 대서야

아이들에게 일기 쓰라고 하면 가끔 '엄마, 쓸 말 없...

파랑에 보였다던가, 지붕에 앉은 새를 보면 인젠가...

기고



김희철

장마가 잠시 주춤하면서 폭풍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호를 의외하도록 한다.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열지수가 최고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이어...

낮잠을 청하는 것도 개인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시설

소 사육농가 '사중고' 축산기반 무너진다

국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소값 하락폭은 매우 가파르다. 지난 5월에 비해...

한우 소비도 급감하고 있다. 광주·전남 16개 도축...

비 감소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더구나 LA갈비 등...

이런 현실에서 한우 생산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다. 미국산...

성장률 4.8% 저성장·고물가 고착되나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는 분석까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경제...

경제성장률이 하향 곡선을 그린 것은 민간소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급락할 수 있다는...

6월 취업자 증가 폭도 3년 4개월만에 최저치였다...

정부는 치솟고 있는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물가가...

無等鼓

인간은 오래 전부터 대기 흐름이나 자연현상 등을...

패한 원인도 결국 엘니뇨 탓으로 분석했다. 고려 말...

날씨 오보



'엘니뇨-노사과' 기상의 총물 의 저자인 로스쿠퍼 존스턴...

에는 날씨가 한뼘한 스펀이다. 과학의 발달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 배타주의 사라져야

길거리에서 흔하게 만나는 사람이 외국인들이다...

장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 사건을 한국인...

일마진 인터넷 메일에 스펀으로 분류된 이메일...

이제 외국인을 무작정 배척하는 천박한 사고방식은...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